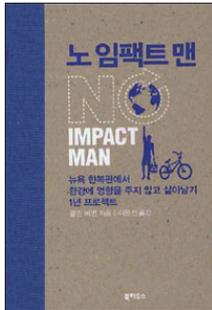


재활용 관련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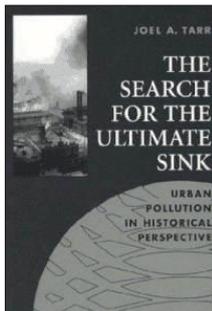
김목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노 임팩트맨(2010)



사라진 내일(2009)



The Search for the Ultimate Sink(2011)

어떤 계기로 누군가 도시 한가운데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콜린 배번은 **노 임팩트맨(2010)**에서 그런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아내와 아직 아기인 딸과 같이 맨해튼에서 좌충우돌하며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노 임팩트 (no impact)'인) 생활을 했던 그는 첫 날부터 쏟아지는 쓰레기에 골머리를 썩이고 모든 과제 중 처음 과제로 쓰레기 줄이기를 뽑아내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우리의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것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를.

놀랍다 할 점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지가 길게 잡아도 몇 백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원을 찾다보면 훨씬 더 거슬러 가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량의 쓰레기 문제는 뭐라해도 대량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 산물이었던다는 것이죠.

헤더 로저스의 **사라진 내일(2009)**은 한때 공동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쓰레기가 순환되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 순환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분리되어 갔는지, 또 점차 분리가 가속화되었는지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신제품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빨리 소비되어야만, 쓰레기가 되어야만 했고 그러다보니 쓰레기가 더 빨리 더 많이 배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배출된 쓰레기는 어딘가 쌓여야만 하기 마련입니다. 도시는 사람과 생산과 소비가 집중된 곳이다 보니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곳이기도 했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도시 주변 농촌은 쓰레기 문제가 한결 덜 했다고들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지와 하천도 꽤나 많았었지요. 자연스럽게 도시의 쓰레기 처리는 도시에서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쓰레기를 빨리 옮기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타르(Tarr)가 **The Search for the Ultimate Sink(2011)**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마냥 계속 새로운 수채구멍(sink)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할까요.

문제는 이렇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새 수채구멍을 찾지 못할 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오염과 공해가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쓰레기를 버릴 곳이 고갈되어 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속에서 살게 되지 않으려면 쓰레기를 빨리 내보내는 사회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혹은 없애는 사회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이는 결국 근대에 들어 손상되었던 생산,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순환 체계를 새로 복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율 혹은 절약,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용이 새로운 쓰레기 처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연자본주의(2011)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설계부터 재활용 순환을 고려한 생산이 도입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재활용 현장을 르브 형식으로 접근한 **102톤의 물음(2013)**, 우리나라와 서울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소개하고 있는 **재활용도시(20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쓰레기 재활용의 가능성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서울시와 같이 공공연하게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목표로 하는 도시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구요.

제프 패럴은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현대 도시의 낭마주이로 살았던 8개월 동안의 생활을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2013)**에서 소개하면서 재활용이 하나의 문화이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이 조금 과하다 싶은 분들은 1년간 100개의 물건만으로 살아보기를 실천했던 데이브 브루노의 **100개만으로 살아보기(2012)**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쓰는 재활용(recycle)을 넘어 쓰레기에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 혹은 새활용(upcycle)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에코 크리에이터 디자인(2013)**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만나 보실 수 있고, **일상을 바꾸는 쓰레기들(2013)**에서는 실제 이 방식으로 만든 작품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아래에 이 글에서 소개한 책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쓰레기가 되는 목록이 아니길 빌어봅니다.

글에서 소개한 책들

- Joel Tarr. 2011. The Search for the Ultimate Sink: Urban Pollu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Akron Press.
- 김대호. 2013. 에코 크리에이터 디자인 - 세계의 착한 디자인 혁명. 아이엠북. / 서울도서관 639.5 2013-16
- 김재영 · 유기영. 2013. 재활용도시. 한울. / 서울도서관 539.49 2013-5
- 데이브 브루노. 2012. 100개만으로 살아보기. 청림출판. / 서울도서관 321.89 2012-23
- 에드워드 홀즈. 2013. 102톤의 물음 : 쓰레기에 대한 모든 고찰. 낮은산.
- 제프 패럴. 2013.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 소비문화와 풍요의 뒷모습, 쓰레기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시대 의창. / 서울도서관 332.64 2013-3
- 조창원. 2013. 일상을 바꾸는 쓰레기들. 지콜론북.
- 콜린 베번. 2010. 노 임팩트 맨: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 1년 프로젝트. 북하우스. / 서울도서관 539.9804 2010-1
- 폴 호른. 에이머리 로빈스, 헌터 로빈스. 2011. 자연자본주의. 공존. / 서울도서관 321.3 2012-9
- 헤더 로저스. 2009. 사라진 내일 :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삼인. / 서울도서관 843.6 2012-248



재활용도시(2013)

city